



성도의 벗

3.4 월 호

· 목 차 ·

권두언(선교부장)	3
예언자의 말씀(대관장)	8
나의 제언(구중식)	15
제 1회 배일문 삼 시 모집	18
선교부 계보 위원회 소식	19
나는 왜 말일성도가 되었나?(최종욱)	21
이 계진 형제 결혼하다	28
황 인철 형제 결혼하다	28
한 인상 형제 결혼하다	29
1966년도 전체 역원 세미나	30
솔트레이크에서 온 편지	31
각 지부 건물 관리자 세미나	35
잃어버린 대화(윤덕병)	36
신촌 지역 집회소 마련	40
각 지부소식	41
침례자 명단	46

* * * *

표지 설명:

"만개한 진해의 벚꽃"

卷 頭 言

Editor's Page



경솔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宣敎部長 裴 一 文

말일성도들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회피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즐기기를 모색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다: "내가 온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 너희는 더욱 풍족히 가지라" 우리는 리하이차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 한것을 믿는다: "아담은 인간이 당해야 할 타락을 하였으므로 인간은 기쁨을 누리라" "행복이란 우리 존재의 계획이며 목적이다" 한 죠셉 스미스의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우리는 행복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음악, 운동, 연극, 하이킹, 무용 그리고 더욱 건전한 몸과 마음을 길러주고 형제애의 느낌을 더욱 강하게 해줄 바람직

한 다른 형태의 오락을 장려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학이나 예배만큼 우리의 종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왜 시무룩하고 신성한제 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참된 종교는 신앙과 희망이 부여됨으로서 기쁨에 찬 사람들을 육성해 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트친다.

그러나 즐거움과 행복이 똑같지 않은것 처럼 "경솔"과 기쁨에 넘치는 것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가 훌륭한 기쁨을 누리되 우리가 그렇게 하므로서 일면의 살균으로서 행동하는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하셨다. 말일성도들은 경솔한 언동과 우애의 차이를 날카롭게 구별하며 행복에 찬 미소와 큰 소리토 웃는 너털 웃음의 차이, 선한 성품의 유모아와 심중하지 못한 농담, 뛰어난 놀이와 어울리지 않는 "장난"을 엄격히 구별한다.

한국에서 복음의 사업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경솔한 말을 삼가하며 모든 경솔한 웃음과 모든 탐욕적인 소망과 너희의 모든 자만과 경솔과 사악한 행위를 삼가하라" (교리와 성약 88장 121절)

다른 교훈에서 주님은 우리가 삼심하는 마음과 죄를 누우치는 영과 기도드림과 교회의 성찬을 통하여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함을 선언하셨다: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얼굴로 많이 웃지 않으며, 왜냐하면 이것은 죄이기 때문이니, 다만

기쁜 마음과 즐거운 얼굴로 행한다면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러면 "야단 법석"을 하고 "경솔한 말"을 하며 말만하는 행위로 인하여 무엇이 그르쳐 지는가? 어찌하여 몰몬과 선교사들과 회원들에게 있어서 서로 "둘러서서 농담"하고 "해롭지 않은" 농담이나 "천진한" 우스꽝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이 죄가 되는가? 내가 이 말일에 있어서의 성도토의 부름을 생각할 때 다 음과 같은 대답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

1. "경솔한" 사람은 항상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다. 주님에 관한 일들은 깊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경솔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결코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2. "경솔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만을 기르며 동료들을 해친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십계명중 두번째 계명을 깨트린다. 그는 그의 동료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

4. "결술"은 감사를 파괴한다.

5. "경솔"은 겸손을 파괴한다.

6. "경솔"은 조심성이 없는 것이며 그리하여 커다란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단순히 "천진한" 농담으로 인하여 빚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나는 아직도 제 21야전병원에서 "천진한" 실제의 농담을 통해 1954년 부산에서 "빈" 총으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어느 정신병자의 얼굴을 기억한다. 뼈는 부수어졌고 재물이 파손되었고 훌륭한 우정이 단순히 술주정하듯한 야단스러운 정신으로

"경솔"하고 겁잡을 수 없게 되는 일을 한 어떤 사람 때문에 생명이 해를 끼쳤다. 나는 새 선교사들의 시무 의식들에 관하여 이야기 들을 때 항상 불안케 된다. 나는 이러한 의식들이 어느 하나라도 언제나 천진스럽게 생각하여 겁잡을 수 없게 되고 어떤 사람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지 않도록 항상 많은 염려를 한다.

7. "야단 법석"과 "경솔"의 가장 나쁜 결과는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이 하는 것이다. 아무도 자기의 시간을 경솔한 대확토나 뜻없는 의살이나 농담이나 거칠고 자기 중심적인 웃음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값진 영적인 일을 자기 마음에 계속할 수 없다. 당신은 동시에 의살 광대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납된 합당한 제자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범적인 빛이 되고 땅의 소금이 되며 인류의 누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오직 말과 행실과 ... 에 대하여 믿는자에게 분이 되라 .."
.."(데모데 전서 4장 12절)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일성도들에게 거듭 경고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입어 온전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라" 교리와 성약 18장 21절과 또 8장 19, 43장 36절, 61장 38절을 보라.

대관장 회의에서 선교사들의 처신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을 나는 한국에 있는 성실한 말일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장한다.

"선교사들은 선한 행동과 선한 태도에 관한 간단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들은 조용한 권위로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교시 받아야 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웃거나 경솔한 언동이나 열띤 토론이나 주장, 함당치 않은 노래, 도박성을 띤 경기 그리고 저속한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태만하지 않고 진실하며 존경할만하고 언행이 일치하고, 자만스럽거나 두지하지 않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두 축복하실 것이다. 즉 우리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솔"한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가까이 가며 온전하게 되고 주님 성령의 뛰어난 과 조용한 권위를 구하도록 하자.

**

**

**

(14 페이지의 계속)

확를 위하고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단결 하리라는 꿈을 실현하는데 항상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상태가 곧 가능하게 되고 실현되며 사람들이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 預言者의 말씀 —

인간의 자유의지

— 영원한 진보의 원칙 —

大管長 데이비드 오·맥케이

(지난호에서의 계속)

얼마전에 합동통신은 6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 국가에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증오의 정신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몇 가지 예를 언급했습니다. 45년이나 50년 전에는 중국에 미국인에 대한 존경과 관용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에 의해

육성된 북경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나는 내 생애를 통해 일찌기 보지 못한 가장 활동적인 중학교 학생들을 몇사람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그 보다 더욱 예의 바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합동통신은 다음과같이 보도했습니다.

"십년전 모태동이 새로 창안한 중국인민 공화국은 깜짝 놀란 아시아 건너로 그 붉은 그림자를 던졌다. 오늘날 길어진 그 그림자는 지구를 횡단하여 미국까지 반을 뻗어나갔다. 그것이 어디서 멈출것인지는 아무도 분명히 말할 수 없다. 66년째 되던해 이 둥근 얼굴과 푹 튀어나온 이마를 가진 농부의 아들들은 공산주의 추종자들에 의해 반신 반인의 지위로 받들어 졌다. 그의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생각까지도 6억 30만 인민들에게 섬서처럼 여겨졌다. 그는 지상에 있는 가장 강한 사람중의 하나였고 그의 세력의 대부분은 인류의 감정을 가장 약화시키는 증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국을 증오하고 부유한 지주를 증오하고 반 혁명을 증오하고 장개석을 증오하고 순응치 않는 사람을 증오했다. 최근 모태동의 중국에서 돌아온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증오는 하나의 원칙처럼 되었고 특히 미국에 대한 증오가 그러하였다. 이처럼 방대한 인류기계가 단지 하나의 연료인 증오에 의해서 움직여 진다는 것을 볼 때 가 공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 대신 사람이 사용 되었다면 지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1960년 12월 11일 일요일, 쉘트레이크 트리분지에 나타난 합동통신에서)

증오의 정신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 놓으려하

있습니다. 증오의 정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계심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우리 잠시동안 사랑의 인간인 예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했으며 모든 기독교인 백성과 여러 계급의 개인에게 스스로 존경받고 경배받았습니다. "미래를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수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리난은 서술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하며 여러가지 이상을 소중히 기르면서 오늘날 예수를 경배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와 영성은 다른 모든 사람의 지혜와 영성을 포함하고 또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8장 12절) 또한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 13장 15절)

먼저 사랑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오늘날 세상 앞에 있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공산 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택동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의 정신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독소를 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탄생을 알릴 때 하늘의 만군이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2장 14절) 이 말씀중에는 신성과 평화와 형제다운 친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상에 계셨을 때 언제나 신성을 본보여 주었습니다. 요단강변에서 그의 성스러운 사명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 3장 15절)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요단강 위에 있는 유혹의 산에서 예수는 지상의 모든 것과 권세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리하려는 악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참엄한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 4장 10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신성에 대한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포함시켰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십이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7장 3절) 그것은 사람의 영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통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에 의해 예배되었읍니다.

평화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화는 행복,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첫째 되는 인류의 축복"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평화가 없이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이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계획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에 인도하는 좁은 길을 따라 간다면 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예언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55페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 16장33절) 똑같은 계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 14장 27절)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의 입과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그가 무덤에서 나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첫 입사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20장 21절)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평화는 개인의 걱정과 가족의 말다툼이나 국가의 폭동이나 곤란에서 면제됩니다. 그러한 평화는 그것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개인에게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총동하는 그리스도의 속삭임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다 나은 자신에 진실하지 않고 의의 율법을 범하고 육체의 유혹을 극복하는데 감정이나 욕망에 젖어 자신을 처리하거나 또는 율법을 범한것을 믿는데 진실하지 못할때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화란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율법에 순종하므로써 오며,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중에 세워놓으신 멧세이지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데 개인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창조주와 자기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 자기와 율법사이의 완전한 조화 즉, 의로운 율법에 복종하고 여기에서 결코 기피하지 아니한 조화 가정에서의 평화, 서로 평안히 지내는 가족의 생활, 이웃과의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년전 세상에는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교훈을 배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죠셉 스미스는 구세주를 보았고 세상에 간증을 가져다 주었으며 구세주의 멧세이지를 기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스러우며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며 말씀하셨던 때와 똑같이 분명히 발달한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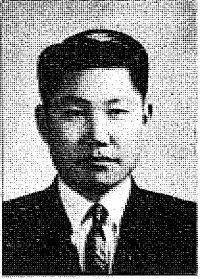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서 근본적인 것은 그릇된 생각의 죄입니다. 그는 탐욕, 적대, 증오 그리고 탐욕과 적대와 증오를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심한 질투를 정죄하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바와 같이 현대의 심리학은 증오를 품고 있는데에 따르는 피해에 관하여 그러한 가르침의 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비난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나쁜 경향인 증오와 비난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신을 손상시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신성, 용서의 미덕, 공명정대한 처리의 필요성 위선의 죄 탐욕의 죄, 사랑의 힘과 인간의 불멸성 등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이 거역하고 6억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국가에 강요된 것과 같은 증오로서 그들의 영육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은 인간을 이기심과 죄에 젖어드는 비열한 생활에서 구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희생과 관용과 아름다움과 사랑으로서만 보여준 영역내에서 인간을 향상 시키는 것임을 부정한다면, 만약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 4장 12절) 한데서 그리스도들 인식하지 못한다면, 만약 의심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부활한 예수는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즉 그는 바로 행동으로 보여준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강한 진리를 얻을 수 있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로운 노력과 악의 있는 계획은 사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교묘히 모트는 사이에 빼앗겨지며 미개인의 생활을 되풀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이상을 소중히 기르게 하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언젠가 많은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

(7페이지에 계속)



나의 提言

청운 지부장 구 중식

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되지 않아 있었던 일을 항상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야말로 누구 못지 않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치밀어 오른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따른 기독교인 일진대 그들이 알고 있는대로의 의를 실행한다면 이 나라의 사정이 이렇지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요지였습니다. 그 당시 자유당 정권이 물러가고 학생들의 피토서 세워진 제2공화국 때였으니까 이들 지도자란 자유당 정권의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수십년 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에 있어서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빈틈없는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겠지만 "선을 추구하고 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인 기독교인 으로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동을 해왔지 안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직 계속되고 있는 풍조이지만 교회의 지위가 곧 사회의 지위와 직통하는 즉 교회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에 출세 하려는 그야말로 명예족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참 성도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내 자신 우리 형제들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로 부터 교회 안에서의 활동, 주님께 의 봉사, 계명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가르침 받아 왔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 기초적인 가르침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이 기초적인 가르침을 얼마만큼 이해하였으며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 스스로가 주님앞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 왔는가 이 유치하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드리고 습득하였다고 주장할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가요? 우리가 기초적인 수학공식을 완전히 외우고 응용문제들을 그 공식에 대입하여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야만 고등수학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순간 순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작은 문제건 큰 일이건 그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아니 영생을 진보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그릇 판단한다면 그것이 엄쇄 반응을 일으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르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생에서 현명하게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사탄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였기 때문에 진보하여 이 세

삼에 오게 되었으며 미래에도 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문제를
옳게 판단하고 계속 노력한다면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나는 "인생은 판단의 연속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 순간 순간의 판단의 총화가 우리를 진보향상 시킬 수도 있
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순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악에 휩쓸리지 않고
뚜렷이 의를 찾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치하다고 생
각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
여서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 될 중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있
어서의 기성 종교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시절
에 튼튼한 신앙의 기초실력을 다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므로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에도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굳은 신념을 내놓기는 표지가 없는
업행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스스로 옳은 신
앙생활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스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앞에 선행을 강조하기
전에 스스로가 선행을 해야 할 것이며 회심들에게 주님께 봉사
하도록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가 주님께 얼마나 봉사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고 대중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
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생활하는가
운데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와같이 근면하고 성실한 몰몬교회로 알려진 우리교
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세상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는

한국의 몰론인 우리들의 한마디의 말씨와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언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가 제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그릇 간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제 1 회** 裴 一** 文 賞 **시 모 집

- | | |
|---------|---|
| 응 모 자 격 | 교회의 모든회원 |
| 응 모 기 간 | 5월 31까지 선교본부
에 필착토록 |
| 상 품 | 1 등(한사람) 1,500원
2등(두사람) 1,000원
3 등(세사람) 500원 |
| 투 고 요 령 | 원고는 200자 원고지에
쓰고 이름은 원고지에
쓰지 말고 별지에 기명하
여 동봉하여 밀봉할것. |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와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으므로 후손된 우리가 선조를 위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의식을 대신 받으며 그 밖에 영생을 위한 모든 의식을 대리토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말일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두한한 사람을 느끼게 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곧 신전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신전의식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 계보 위원회이며 이 한국 선교부에서는 지난해 10월에 한국 선교부 계보위원회가 비토소 조직되어 회장에는 선교부장 제1보좌인 레이 지. 카우리 형제가 선택되었으며 제1보좌와 제2보좌엔 각각 김기춘 형제와 지영달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서기로는 선교부장단 서기인 파울 이. 존슨 장토가 겸임하여 일하고 있다.

그동안 선교부 계보위원회에서는 "계보도서실"을 선교본부에 마련하여 계보자료 수집 및 비치와 열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각 시족에서 갖고 있는 족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21일 양일간에 있었던 한국 지방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계보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선양 하였다. 그리고 각 지부에 지부 계보위원을 두고 우선 회원들의 "가족기록서" 작성을 장려하고 있는바 각 지부 계보위원은 다음과 같다.

삼척지부 - 창조 협제	부산지부 - 정상식 협제
청운지부 - 이민태 협제	부산동구지부 - 박묘자 자매
서부지부 - 김근호 협제	대구지부 - 배수열 협제
동부지부 - 김성규 협제	신촌지역 도입 - 최종득 협제

매월 금식주일 후 첫 화요일 7시에 지부 계보위원 전체 모임을 선교부 계보 도서실에서 갖고 있는바 반드시 계보 위원이 아닐지라도 계보 사업에 관심있는 분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을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 "성도의 벗" 지면을 통하여 이 계보사업의 활동 상황과 직접적인 여러가지 기록서 작성요령을 발표하려는바 여러 회원들의 선조를 위한 신건의식 자료 준비와 서류구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선조를 찾고 우리의 선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의 가족이 다같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야 함을 생각해 볼 때 늦게나마 한국 땅에 계보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어둠과 구속에서 밝은 빛과 자유로운 세계로 선조를 인도함이 직접 후손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면서 선조를 찾는 일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람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계보사업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이 지면을 할애하여준 "성도의 벗" 편집자에게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지면을 귀중하게 다룰 것을 약속해 둔다.

나는 왜 말일성도가 되었나?

최 종 욱

우연한 기회에 어머니를 따라 대한민국 대구시 대봉동122번지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기회에 작은 형님을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친구들과 특히 작은 형님과 종교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했습니다. 이 때는 제가 불교의 부패성과 기독교의 기실확됨에 저만의 하나님에게 고자질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형님과 같이 시간이 늦는 줄 모르고 진리 탐구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제가 흥분과 편견에 치우쳤지만 그때 형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라는 대신권의 권능 때문인지 언제나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누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형님 후일 선교사님들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복음의 이치는 상세히 설명해 주신 뒤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은 살아 계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에 반대해서 안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 같은 인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뱀에 물혀 죽으며 어떤 사람은 기근에 허덕이는가? 라고 반문했을 때 형님께서 "시련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거듭 제가 시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이 자식을 갈취도록 때려주는 것"이라고 답하셨을 때 저는 나같은 부모로서 자식들을 시련 안주고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을 때, 인류의 조상과 불문의 조상이 같음을 예들며 종교는 그렇게 감

정적 논리적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래에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어머니도 없다니 자식의 불행과 가혹에는 눈뜬 봉사이니 하나님은 없고 세상은 우연이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므로 울기도 웃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슬픔과 풍파를 겪듯이 저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란 돌변사태 — 사랑하는 할머니의 임종이 사정없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유일한 할머니였습니다. 보통 때에는 저는 초상집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는가?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인데 버스 탔다가 증도에서 내린 것 뿐인데 무엇이 그리도 슬픈가?라고 그러나 웃음인지 슬픔인지 저의 온 맘에 닥쳐왔습니다. 온 식구는 슬픔에 잠기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 역시 울음을 참으려 했으나 참고 비웃으려 했으나 역시 인간은 인간이라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는 가족도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길 싫어했다고 봅니다. 죽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물러나게 되는 무서움 — 아! 이 모두를 누가 만들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 저는 하나님을 저주 했습니다. 나를 보낸 조물주를 미워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천하다. 아무도 없는 외딴 산중에 던져 집니다. 뒷뜰에 나엽하나 그 누가 기억하려고 하겠습니까? 밭다 그 누가 밭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영 할머니는 가고 오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초라한

인간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나와 같은 두상을 반함을 두푸리케이트 시키지 않도록 고함마술트처럼 독신자로 여생을 보낼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기와 희망의 갈피에 섰을 때 형님께서 인생이 무삼하다고 느끼지 말아라 더럽다고 느끼지 말아라. 인생은 희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왜냐하면, 할머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이다. 인생의 희망과 아름다움은 만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란다. 네가 만일 교회에 나오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차츰 인생이 희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 내가 약속하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독한 불안한 심사에서 알아 보기는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형님을 따라 처음으로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대구 중앙지부에 참석했을 때 한인삼 장토님, 렛셀 장토님, 엘리압스 장토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위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더러는 미국인이라는 호기심에서, 더러는 소일만의 기쁨을 위해서 참석하며 미국인 선교사와 공부하려 했으나(그들의 대부분은 회원이 못되었지만)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 진리의 길 인간다운 길을 찾기 위해서 좀더 빨리 많이 알기 위해서 한인삼 장토님과 공부를 청해서 한달 가량 공부했습니다. 진실로 그 선교사님과 인간 본연의 자태에서 가장 심각한 존재와 생태에 관해서 묻고 배웠음

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 입학식날이 닥아 와서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향에 가고 그는 나의 고향 대구에서 미래를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처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적 없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처럼 저의 맘에 가득히 담은 맘과 초라한 맘이 하나가 되었나 봅니다. 선교사님과의 공부를 통해서 첫째로는 제가 가장 의문했던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의 완전한 상태가 되리라는 것을 지금과 같이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 질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또 아까운 젊음을 우리를 위해 바치신 예수님 못사도 죠셉 스미스 등등의 일생의 역사는 시련과 가혹의 연속적 과테고리 가운데 도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펼쳐 보았을 때 과연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인간의 완전에는 가는 문화 발전은 응전과 도전의 반복이며, 새로운 인간을 구하는 참 종교가 미래에 형성 될 것이라는 말도 수긍이 가게 되었다. 그러니 여기서는 그 선교사님의 경험과 종교철학을 통해서 완전이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내가 불완전이란 없는 것이라 인정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선교사님과의 공부를 통해서 믿지 않고 저주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존재와 참뜻의 구함은 달성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장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즉 세상에 현혹되어 망서리고 괴롭거든)"를 읽고 제가 물론이 되기 전의 경우같이 슬픔을 안고 망서렸던 순진한 죠셉 스미스가 간절히

기도해서 드디어 숲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증거와 간증 — 돌본경 번역 — 순교한 모든 것은 가공의 픽션은 아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째 토는 그와의 신약성서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젊음은 온유와 아름다움으로 컸다는 생활의 아름다움을 나도 커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부지런히 일함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카펫터였다.) 나는 이전에는 예수는 34살 때 꺾인 초라한 연약한 인간으로 생각했고 오늘날 흔히 보는 미치광이 희랍의 소피스트한 철학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귀공자나 힘 없는 갈 때가 아니라 온유한 만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의 영혼 — 짐진자를 위로하여 주는 모습 곤경에의 죄인의 친구 병자의 의사 무지한 자의 선생 구세주였고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은 쉽게 얻진 않았다. 인간에 피곤하면 자연으로 숨쉬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리하여 길렀던 것이고 자란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소임을 맡기시려 할 때에는 그자의 뼈를 시리게 한다는 공자의 말씀도 기억되었다. 그도 우리와 같이 구약성서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다.

과연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맘으로 나타난 영혼의 말씀은 성경이 분명하다. 우리 인간은 집만 가지고 양식이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한 마음씨는 꽃과 같이 뜻 나비나 벌들로 부터 기쁘게 짓밟혀 주는 희생의 맘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상의 선교사님과의 공부는 이론적인 면에서 살펴본 것이지만 직접적인 교회 생활면에서 인간의 사랑을 담백 마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예수의 사랑의 말씀 — 인간대 인간의 사랑은 인간 대 하나님과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하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명시하는 인간보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일치하는 말일성도의 향상을 위한 사랑의 시간 즉 같이 모여 성찬을 들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모두가 각자의 소질을 발표하며 무용하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매 주일마다 기다려 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족적 마음의 하이마이트란 것을 알게 되었고 진실로 말일성도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회복된교회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으로 된 요즈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무의식중에서도 알곤 합니다. 회원이 되기 이전에는 패배의 시점에서 나약함을 한탄했으나 조그만 명예의 패전도 승리의 한 형식으로보고 두손모아 기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천사만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었지만 예쁜 빛이 희미하고 빈약한 미덕의 여자도 신앙만 있다면 천사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던간에 소금을 뿌려 제비를 잡으려할 정도로 어리석었지만 엄숙한 세사에 밝고 늘 웃음지을 수 있는 성인이자 라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돌몬이 된후 신앙위에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친절 가운데서 자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은 과거의 저와 같은 포기과 희망의 갈피에선 초

라한 인간을 희망에 넘치는 인간이 되도록 인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유혹을 버리고 우리의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간증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라면 사회의 어떠한 유혹과 규칙일찌라도 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행해서는 패자가 있을 수 없고 증오를 행해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무슨 축복을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효도를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구도자 되시는 여러분! 망서리는 여러분!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용감한 사람만이 아버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흥차 한잔쯤 마셔야 ? 내가 한개 피우므로써 상대방 한개를 없애서 상대방의 건강을 보살핀다는 변명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기 2500년에는 인류가 한사람 앞에 반평의 땅 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공포를 던질 용기를 가집시다.

슈타인 백이 말한 그대로 인간이 완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작가는 문학에 이바지할 수 없고 작가행세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이바지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성도인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하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계진 형제 결혼하다

전 삼척지부 주일학교 회장이었던 이계진 형제는 지난 3월 8일 충남 당진 고향에서 친지들의 많은 참석리에 화족을 밝혔다 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원의 말에 의하면 신부는 현모 양처 타입으로 앞으로 남편된 이 형제를 원만히 도와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신랑 이 형제님이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 회원들에게 결혼식에 청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합니다.

**

**

**

황인철 형제 화족을 밝히다

서부지부 전 지부장님이셨던 황인철 형제는 같은 서부지부 회원인 김용자 자매님과 지난 3월 19일 신문회관에서 많은 친지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그 넓다란 예식장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축하객들로 가득차 이들 새 가정의 앞으로의 행복을 다짐하였습니다.

한인상형제 화족을 밝히다

2년 동안의 하나님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쳐오다 지난 2월 9일 성공적으로 그의 임무를 완수한 삼청 지부 지부장 한인상 형제는 지난 3월 26일 용두동에 자리잡고 있는 동부지부의 새 예배당에서 한국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팔머 박사님의 주례로 성함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인상 형제와 이규인 자매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도인 축하객들은 넓은 예배당을 입추의 여지도 없이 메웠습니다. 결혼의식이 끝나고 피로연은 삼향회 활동반에서 지영달 형제 사회로 다채롭게 진행되어 새로 탄생한 새가정을 마음껏 축하했으며 특히 이날 선교부장님의 가족 친척이 한국 노래를 합창 한것은 이 모임을 다채롭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형제의 새가정이 한국에서의 모범적인 몰몬가정으로 축복받을 것을 성도들과 더불어 기원합니다.



66년도 첫 지방부 전체

역원 세미나

지난 4월 5일 1966년도에 처음 있었던 한국 지방부 전체 역원 세미나는 스펜서 제이. 콕머 선교부장님의 감리아래 지방부장단의 사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제1총회 때는 지부장단, 상향회, 주일학교, 상호부조회의 조직별로 분반하여 각 역원들이 해야 할 의무를 토의하였으며 특히 지부장단 반에서는 선교부장님이 고향의 자기 워드(지부)의 감독(지부장)이 회원들에게 배운 사람을 실예를 들어서 지부장단이야말로 시온성의 간수로서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회원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제2총회에서는 이호남 지방부장님이 적시에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트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열심히 배워야 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선교부장님께서서는 "부름 받은 자는 많아도 태함을 받는 사람은 적도다"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우리 역원들이 각자 부름받은 임무에 충실하여 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로 우리 한국 선교부 전 역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충실하였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트레이크에서 은편지

존 스탠리 스코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부산 역에서 헤어지며 본인을 사람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신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이 될듯한 입사를 나누면서 이것이 끝이라는 기분이었지만 서울에 올라와 보니 끝이 아니라 내 입장이나 여러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교본부를 거쳐서 떠나기 전에 2년 반동안의 가장 중요하고 앞날에 대한 가장 밝은 희망을 가져온 지방부 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서 한국 선교부는 이 선교부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에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을 한것입니다.

요는 선교사들이 나와서 하는 일은 다만 씨를 뿌리는데에 그치는 것이지만 선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씨를 받아서 심으며 가꾸고 기르고 양분을 주면 오래 안가서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열매속에 보면 더 다른 씨앗이 그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만 그 열매를 따먹을 뿐 아니라 그 열매속에 있는 단 세대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간증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앞날에 교회내에서 가정을 세움으로써 이 책임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하여야 되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하여 계보사업으로의 출발을 한즉 여러

분이 여러분의 세대에 심긴 씨앗으로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과 특권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의 출발을 보고는 정말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기분으로 한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떠나는 것이 내 입장에서조차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모든 축복이 앞서 세대 사람들에게 있게 하셔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할 뿐이 아니라 나도 그리 하여야 합니다. 이 일의 어느 부분이라도 혼자 하지 못할 줄 알고 있으니 이상적인 동반자가 되어 영원히 나와 더불어 이 일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여성을 찾아내기에 지금으로부터 마음을 기우릴 작정입니다. 이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오늘 맡은 일의 높고 낮고 무겁고 가벼운 구별을 생각치 아니하고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

솔트레이크 비행장으로 내려가는 순간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마음이 떨고 있으며 감사함에 넘칩니다.

2년 반동안 헤어졌다가 양친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 이렇게 좋으면 부활한 다음 신전에서 맺은 성약에 따라 만나러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는가!

앞날의 만복을 빕니다.

1966. 2. 22. 형제인

존 스탠퍼 스킵

*이 편지를 성도의 벗에 실었으면하고 여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구 중식 형제에게

그간 교회의 제반 업무에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그 곳 구형을 비롯하여 이호남, 정대관, 한인삼등 제형의 노고들 깊이 감사합니다. 성도의 벗이 홍병식 형제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60마일(서울-평택)곳에서 토스안젤스에 차를 몰고가서 빌려왔습니다. 다행히 교회기관지로서 손색없는 것을 느끼고 제형들의 성의와 충성과 노고들 다시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불초 소생에게도 매월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멀리서 교회의 발전을 듣고 볼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흐뭇한 감정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학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귀국하여 여러분을 도우며 몸바쳐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는데 여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구형과 그곳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호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 상훈 올림

**

**

**

젠슨 장로로부터

전 선교부 기록서기를 지낸바 있는 데. 토이 젠슨 귀환 선교사는 현재 유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기쁜것은 "화이트 필드" 편집자였던 덴 유린 버크장로가 귀국하여 바로 이웃에 사는 그들은 재회의 기쁨을 가졌다 합니다.

"시먼스 장로" 귀국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수고하셨던 시먼스 장로는 지난 3월 29일 본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신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선교사업을 한 몇사람 되지 않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된 시먼스 장로는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임기만료 두달전인 지난 3월 28일 귀국 하였습니다. 팔마 선교부장님은 이와같이 훌륭한 선교사가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을 심도들과 더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시먼스 장로님의 아버지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와 병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빕니다.

** ** **

해 외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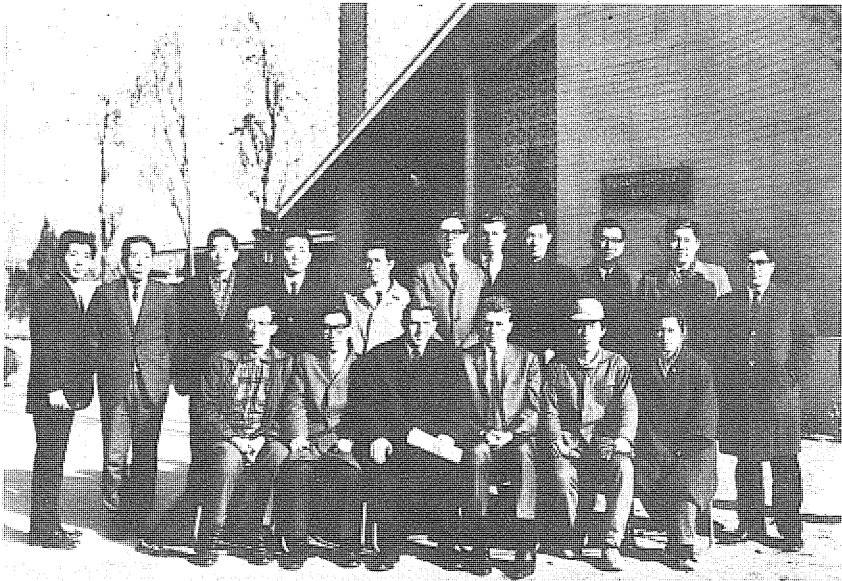
1964년 도미한 서정자 자매는 그간 라성 컬럼비아 방송대학을 다니면서 최근 한인 문화방송국을 설치하고 매 일요일 두 시간씩 방송을 하여 이곳 한인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몇 안되는 라성의 한인 심도들은 "한인 그룹"의 명칭으로부터 한인 지방부로 발족하고 한인 지방부장으로 이 영범 장로가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한다.

1966. 3. 12. 라성 한인 지방부

각 지부 건물 관리자 세미나

지난 3월 25일 동부지부에서는 한국 선교부의 모든 지부의 지부장님들과 각 지부의 관리인들이 모여 교회관리인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을 겸절하게 하는것은 주님께 봉사하는데 있어서 어느 직책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선교부장님이 강조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 관리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손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날 한국선교부 건축감독인 루스 형제님은 교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임이 끝난다음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든 회원들은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대화

윤 덕 병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양지에 앉아 태양이 주는 오늘의 혜택을 받노라면 나그네의 가슴은 뚜렷한 이유없이도 뭉뚱이 아퍼오는 일요일 아침 나는 벗과 더불어 고답한 마음을 헤치고 말이 없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자연이 빚어준 신비에 도취해 버렸다.

소녀와 네잎의 크로바를 찾으려 했던 그러한 애뜻한 소망은 해를 거듭할 때마다 거센 현실의 어두운 바람 때문에 무참히도 붕괴되고 말았다. 아름다운 꿈의 피안에 아토 새겨둔 이삼의 누각은 산산히 허물어져 세월이란 이틈의 물거품에 표류하여 어디론가 모두가 다 흘러갔다. 그런데 이제사 다섯잎 크로바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잃어버린 대화의 그리움이 알알이가 숨속 깊이 들어와 박힘은 어인 일일까?

세상에 다섯잎을 가진 크로바가 있다는 것은 아직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으니 다섯잎 크로바를 찾은 내 맘의 신기함이란 어지간 했었다.

나는 찾아낸 다섯잎 크로바를 무슨 대단한 보물이나 되는 양 내 수첩의 한 가운데를 열어 소중히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섯잎 크로바는 또 하나 사색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색의 영토를 내게 마련해 주었다.

먼 옛날 사람들은 귀하게 찾아낸 네잎 크로바에다 믿음, 소

망, 사랑, 행복이란 말로 그럴듯이 일새마다 새겨넣었다. 그러니 내가 찾아낸 다섯째 크로바의 나머지 한장에 내가 하나의 의미를 명명하는 특권을 누리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잖은가?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이 다섯째 잎에 명명할말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다섯째 잎에 새길 그럴듯한 말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내가 생각한 말은 봉사였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정해준 네개의 의미는 어쩔지 자기 본위의 예고의 뉘새가 짙다. 그래서 이번엔 자기 보다는 남을 중심으로 하는 말을 찾고자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곧 봉사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연히 성경을 읽어보다 사람을 곧 봉사라는 것을 보았기(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3절)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은 "희생"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랑이다. "인내"를 들먹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랑은 오래 참고 ..."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제외.....

이것 저것 적당한 말을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함채 며칠이 지났다. 집에 그냥 있기도 무료하여 일간 신문을 뒤적거렸더니 사회면은 온통 살인, 파괴, 자살, 강간등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일대 용단을 내려 정의를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이것도 신통찮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로마서 5장 1절) "사랑은 ... 불의를 행치아

니 하며(고전 13장 11절) "저희가 믿음으로 ... 의를 행하기도 하며"(히 13장 33절)

그 다음에 생각한 덕, 확평, 감사 그러나 이것도 믿음, 소망, 사랑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지 않은가?

그 다음이 지혜다. 허지만 솔로몬왕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지혜를 구했다. 하나의 극히 아름다운 말 그 한마디로 나의 뒤숭숭한 마음 속을 개운하게 밝혀줄 어휘는 아무래도 떠오르잖고 머리속에 오락가락하는 생각은 모두가 이렇게 시원찮은 것들, 그래서 어두워 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잔디밭에 앉아 무어라고 열심히 주어 섬기는 나의 언어를 벗어제멋대로 나열해 보면서 "이건 자네같은 문학자 다음지 않은 크리스찬적인 녀두리에 불과해" 하면서 냉소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로선 개척을 닦겠다고 했다. 개척은 내가 지금까지 지꺼려 댄 말보다는 훨씬 실제적이고 사나이다운 말이며 벗의 성격이나 형편으로 확신 하나의 절대적인 어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벗의 의견이지 나의 의견은 아니었기에 일축해 버리고 말았다.

개척과 일매 삼통하는 것으론 창조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문학을 한답시고 꺼덕대며 유약한 몸과 마음의 소유자에겐 개척보담은 창조가 어울리 것 같아 창조를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선뜻 결정하기엔 남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의미를 찾아 헤메이다 지친 나는 드디어는 다섯째 잎에 새길려는 언어의 순례를 중지하기로 했다.

시작하고서 끝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 어쩐지 섭섭하긴 하

지만 아직도 내가 인생을 알지 못하고 보다 성숙한 인간이 못된 탓으로 돌리고 아무래도 긴박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위하여 아직도 의미를 새기지 못한 다섯째 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라는 수 없이 많은 날들이 흘러갈 때마다 이 다섯째 일이 준 마음의 여백을 조금씩 채워가노라면 어느 날인가에는 나도 보다 성숙해 질게고 그 때가 되면 나머지 일에 새길 말은 내가 애써 생각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유로될 것이 아닌가.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에겐 다섯째 일에 새길 어휘가 진실로 인생의 온갖 체험을 통하여 찾아낸 한마디의 지극히 필요한 어휘가 마련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오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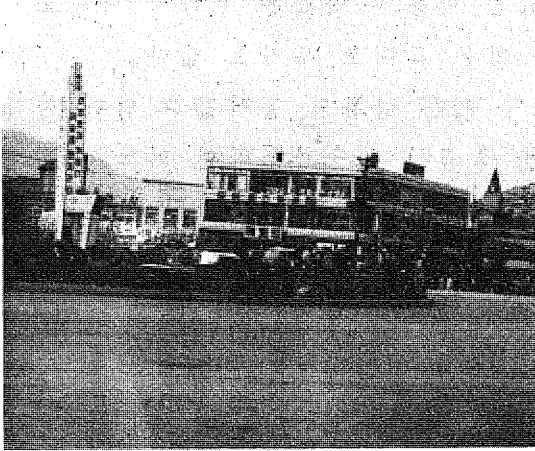
내가 곱게 성경 갈피에 끼워 둔 다섯일 트로바악 다섯째 일에 하나의 의미를 명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리를 아낌없이 드리겠노라, 그리고 푸슈킨의 시나 음미하면서 밝은내일의 힘찬 걸음을 딛어 봐야겠다.

인생은 꿈을 먹어 취하면서 현재를 배설하고 생존하는 것이라 하면 현재가 멋진 포인트일 수 밖에 ... 이젠 완연한 봄인가보다. 끝없이 넓은 하늘이기에 끝없이 높아만 가는 것 같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화창한 봄 날에 정신의 풍부한 양식을 마련하여 부조리한 현실의 틈바구니에 몸부림 치면서라도 부각된 생(삶)의 토랄을 망각치 않는 좋은 어휘를 우리 다같이 찾아봅시다.

3월 3일

서부지부 윤 덕병

신촌지역 집회소 마련



그동안 홍 영순 형제
님의 집에서 주일학교 모
임을 가졌던 신촌지역 모
임에서는 이번에 신촌 노
타리에 예배장소를 마련
하여 4월 첫주부터 새로
움긴 곳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신
촌지역의 새로운 예배 장

소는 신촌지역 모임의 회원들이 기금의 20%를 완전히 준비하여
나머지 80%는 교회의 정책에 의해 선교본부의 도움을 받아 구
하게 된 것으로서 애당초 신촌지역과 성북지역 모임을 설치할
때 완전히 자체 운영을 기도하셨던 선교부장님의 뜻이 한단계
이투어진 셈인 것으로 앞으로의 신촌 지역 모임이 지부로 발전
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各支部 消息

— 서부지부 —

* 합창단 조직

지방부에서 합창을 했던 단원과 새로운 회원들로서 지부에 배를 위한 합창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은 지부 역원이 성의를 기울여서 매주일 연습하며 한달에 한번씩 친목회를 갖고서 연구하는 것은 능력의 증진을 위해 힘쓰는 결과로서 삼십여 단원들의 찬양하는 확음은 실로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 자랑스런 사람에게

파어이 싸이드 모임은 각급 학교 삼십이명의 졸업생 축하 예배로 의미 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부장님의 졸업생을 격려하는 축하 말씀을 필두로 강자매는 그의 축사에서 "자랑스런 사람에게"를 낭독하여 또 한번의 새로운 출발을 축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의 날개"위에 펼쳐진 축가를 사이에 두고 합창으로 들려준 "마벨라 빙바"는 연가의 아름다운 사업처럼 따스한 분위기가 답사하는 황 형제의 말로도 충분히 그 정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정성을 합한 이런 순간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자랑스런 젊은이들의 가슴에 청운의 희망을 새겼습니다.

* 정원 미확를 위하여



굳었던 생흙이 우리의
 삽질로 흑끈 냄새를 풍기
 며서 따스한 봄의대기속
 에 부스러지기 시작했읍
 니다. 이러한 상태로서
 의 결말에는 생명의 씨앗
 을 그 속에 숨겨둠으로써
 탄생될 꽃포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땀맺히는 여러
 분들의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람스러운 전원의 훈경이었읍니
 다.

주일학교의 각 반별로 화단을 만들어 가꾸고 주말이면 전
 님부들 전종하는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군자의 고운 난초의 연
 특색 새싹의 정취를 감지하며 화단을 가꾸는 손길에 지상 천국
 의 낙원이 우리의 손으로 조화되어가는 기쁨도 큼니다.

이웃 분들에게도 알립니다.

* 지부 대회

참모: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이 불토새서의 말씀을 주제로 한 감사와 교훈의 뜻을 세운 모
 임이 있었습니다. * 신년회에서부터 저녁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경
 건함과 존경심과 찬미하는 일념으로 이루어진 결실을 다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심을 구현한 총형제의 말씀과 감사속에 생활할 것을교
 시한 카우리 형제의 말씀은 높은 식건을 보태준 알찬 대회날이
 있습니다.

- 부산 동구지부 -

신전 결혼의 가치성에 대한 복음잔치

때 - 1966년 2월 25일 오후 7:00-9:00

장소 - 부산 동구지부 예배당

참석 - 회원 또는 비회원 부부동반의 초대 손님들(50명)

영화 상영 및

특별말씀 - 팔머 선교부장님의 신전 결혼의 영원한 가치성

모임의 수확 - (1) 회복된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새로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심
과 흥미를 보인 점.

(2) 말일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은 선조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입도록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
고 있다는 것을 삼기시킨 점.

모임의 계획과

준비 - 부산 동구 지부의 칼슨, 스노우 두 장로님.

모임의 일화 - 초대 손님들의 간청으로 팔머 선교부장님이 드
디어 노래하여 인상적인 모임을 만들었음.
노래는 "언덕위의 집" 이었음.

- 삼척지부 -

*삼일절 기념 등반

지난 3월 1일 삼척지부는 3.1절 기념행사로서 많은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백운대에 등산을 갔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씨였으나 수유리 버스 종점에서 모인 35명의 형제자매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이른 봄의 등산을 즐겼습니다. 정상에 올라 안개에 뒤덮인 우이동 쪽과는 달리 맑게 개인 정능 쪽 풍경은 회원들의 찬탄을 사기도 했다. 비가 와서 불을 피우지 못한 채 바위아래에서 가지고 온 점심을 나눠먹고 난뒤 기념촬영을 하고 하산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곳에서는 형제들이 자매들을 부축해 주어 신사도를 발휘하기도 했는데 샴터에서 잠시 쉬면서 즐거운 게임을 했다. 봄비에 축복을 받으며 진흙길을 무사히 내려와 정능에 도착하니 오후 6시 30분이었다. 이날 성명숙 자매님은 "카메라 우먼"으로 활약해 주셨다.

* 학사회원 대량 탄생

삼척지부에서는 이번엔 많은 대학 졸업회원들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2월 하순 4년동안의 형설지공으로 영예의 학사 학위를 받은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동길 형제, 서희철 형제, 전수길 형제, 주덕영 형제, 성양자 자매 등이다.

* 주덕영 형제 입대 환송회

지난 17일 삼척지부 상향회 모임에서는 주덕영 형제의 입

대 환송회가 열렸다. 주 형제는 지난 2월 22일 알.오.티.씨. 소위로 임관되어 18일 훈련차 입대하게 되어 삼척지부는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여 그의 장도를 비는 모임을 가졌는데 약 5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심황을 이루었다. 서희철 형제의 약력 소개와 선물증정에 이어 형제 자매들의 주 형제와의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 하였었다. 성양자 자매님의 피아노 독주와 허완, 사문자 자매의 독창이 있었고 서희철, 김동길 형제의 이중창도 인기를 모았다.

삼척 지부
백운대
등반 기념



**

**

**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966년 2월 한국지방부 칩레자 명단

이 남 희	남	청운지부	양 경희	여	동부지부
정 순자	여	"	김 형중	여	"
최 정애	여	"	한 혜삼	여	"
최 튜이	여	삼척지부	양 금희	여	"
최 톤이	여	"	이 만호	남	"
강 의순	남	"	서 평기	남	"
윤 덕순	남	서부지부	김 원중	여	"
정 태성	남	"	정 용환	남	부산동구
이 해동	남	"	박 석현	남	부산지부
김 부환	남	"	노 재형	남	대구지부
고 점숙	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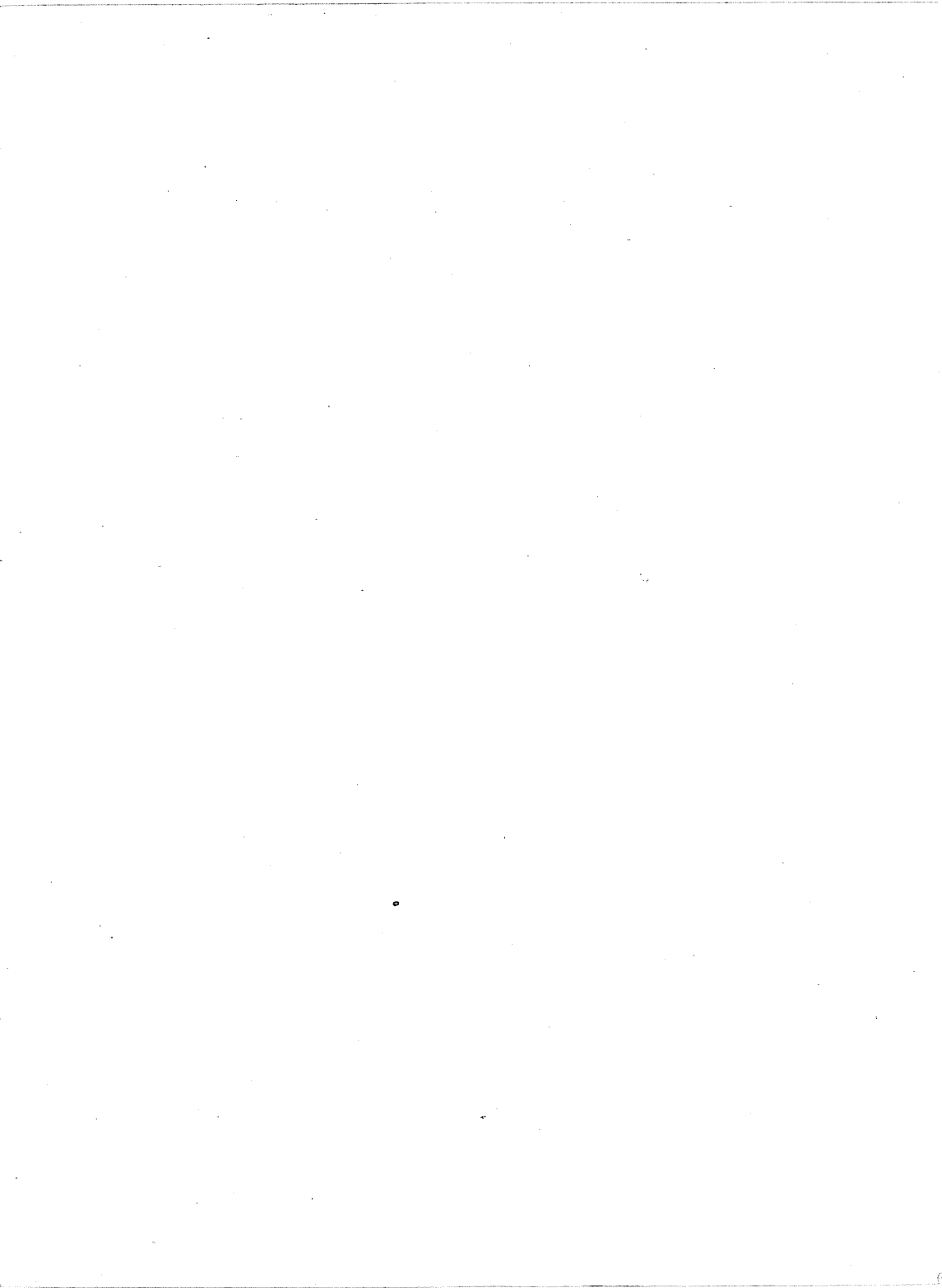
**

편 집 후 기

봄은 왔으되 날씨 는 아직도 차가움을 느낍니다. 이 차가움 가운데도 진달래, 개나리, 벚꽃들은 웃음지어 우리에게 봄이 완연함을 알려 줍니다.

"성도의 벗" 편집실은 원고를 보내주신 각지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더 많은 원고를 실기 위해서 기다리다 발행일이 늦어져 이번달은 3,4월 합병호를 발행하기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구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 所 錄)

- 宣 教 本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番地
清 雲 支 部 } ⑦③ 3995
- 三 清 支 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② 3596
- 東 部 支 部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⑨② 1005
- 西 部 支 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⑦③ 1208
- 大邱中央支部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② 6659
- 釜 山 支 部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② 1371
- 東 區 支 部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성 도 의 벗

發行人 스벤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